

God delivers his people from the consequences of sin in surprising ways

The Lord's Surprising Saviours 주님의 놀라운 구원자들 (사사기 3.7-31)

The Temptation to Sanitise God

Well, we all know from experience that the last two years has seen a dramatic rise in the use of hand sanitiser. In 2019 the total world revenue of the product was ~ 3.2 billion USD. This year, it's projected to be > 5 billion

We've all become a lot more familiar with sanitising to prevent harm. But there's another kind of sanitising that hinders us.... It also carries the meaning of 'making suitable....presentable....palatable' We also 'sanitise' when we try to control or contain someone or something so that it fits with our own sense of what's acceptable

It becomes intolerable when it's not enter Judges....& this passage in particular. It challenges our own temptation to keep God & His word in a place that's contained & comfortable. It's not a question of have we....but..... to what extent have we become like this in regard to the Lord, His word.....His victory over evil The Lord's purpose in the passage before us is to break our sanitising — as we behold His surprising saviours to defeat evil — His glory in this rebukes, humbles..... comforts & reassures us.

Outsider Othniel Disposes of 'Double-Wickedness' (7-11)

V7, 'And the people of Israel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They forgot the Lord their Go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eroth. Therefore the anger of the Lord was kindled against Israel, and he sold them into the hand of Cushan-rishathaim king of Mesopotamia. And the people of Israel served Cushan-rishathaim eight years.'

The first & second parts of the cycle of Israel's evil of worshiping the fertility gods of the Canaanites & being punished by the Lord....summarised in the last chapter finds its first concrete example.

하나님을 “소독”하려는 유혹

지난 2년간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많은 손 소독제를 사용했습니다. 2019 년도만 보더라도, 손 세정제의 전 세계적 총 매출액은 약 32 억 US dollars 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총 매출은 50 억 US dollars 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그러나 여기 우리를 거스르는 또 다른 소독이 있음을 봅니다. 영어로 **sanitise** 는 소독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또 다른 의미는, “적합하게, 받아드려 질만 하게, 마음의 들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권에서는 이 **sanitise** 라는 단어를, 우리 기준에 맞게, 어떤 사람이나 무언가를 조정하려 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맛에 맞게 모든 것을 바꾸기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사사기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기준에 맞게 변질시키려는 유혹을 직면합니다...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주님의 큰 목적은 주님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 놀라운 구원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의 꾸짖음을 통해 그의 영광을 상기 시켜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위로하고,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외부인 옷니엘이 두 배로 사악한 왕을 처분하다 (7~11 절)

7~8 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그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더니”*

가나안 민족의 우상을 섬겨서 주님께 벌을 받는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그 첫 번째의 예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God delivers his people from the consequences of sin in surprising ways

The Lord's response to Israel's evil,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them....The word 'therefore' shows us that God's wrath is His perfectly-logical holy response to evil...Against the evil-doer — in this case His covenant people, Israel who had broken faith. In return the Lord hands them over to the foreign king, 'Cushan-rishathaim' It's a given name....'rishathaim' means 'doubly wicked' The land translated as Mesopotamia rhymes with 'Cushan-rishathaim' 'Aram Naharaim' — Aram is in the region also known as Mesopotamia..... 'Naharaim' means 'two rivers' So the sense of it is, 'double trouble from Cush' king of 'double rivers from Aram' It's the first hint of the inspired writer using humour to make a mockery of the enemy.

Next in the cycle that was also in the summary is that the people cry out to the Lord. In His mercy.....V9 we read that the Lord 'raised up a deliverer for the people of Israel, who saved them, Othniel the son of Kenaz, Caleb's younger brother.'

The introduction has already told us about Othniel who was Caleb's nephew who married his daughter, Achsah. But what's notable in the flow of this passage is his origin — though he conquered the land for Judah — he's called the 'son of Kenaz.' Genesis 36:11 — Kenaz was an Edomite — a descendant of Esau — an outsider to Israel.

v10, 'The Spirit of the Lord was upon him, and he judged Israel. He went out to war, and the Lord gave Cushan-rishathaim, king of 'Aram Naharaim' into his hand.

After his victory, 'the land had rest forty years. Then Othniel the son of Kenaz died.' He's the first of the 3 surprising saviours to an unfaithful - undeserving people

Ironic Ehud Overcomes a Fattened Calf (12-30)

V12, '....again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the Lord strengthened Eglon, the king of Moab against Israel, because they had done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이스라엘의 이런 악행에 주님께서서는 크게 분노하십니다...이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함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완전히 논리적인 반응이며, 거룩한 반응임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을 저버림에 대한 대가로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이방인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 왕의 성이 "리사다임"일 때, 이 성은 "두 배로 사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순환 가운데, 그들이 죄를 지어 주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이런 울부짖음에 응답으로, 주님께서서는 그 은혜 가운데 9 절의 말씀과 같이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사사기 서론에서는 이미 웃니엘에 대해, 그는 갈렙의 조카이며, 그의 딸인 악사와 결혼한 자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유다를 위해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창세기 36:11 절에서 보듯, 그나스는 외부 사람 취급을 받은 에서의 자손으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10 절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웃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가 승리를 거둔후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웃니엘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첫 번째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에훗의 승리. (12~30 절)

12 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God delivers his people from the consequences of sin in surprising ways

.....same pattern of Israel's evil.....same holy-logical response of wrath against their evil. So the Lord raised up the king of Moab who in v13.....joined with the Ammonites & Amalekites against Israel....

though none of these nations were of the 7 who were in the PL....they were to the east of the Jordan River.... & south of Canaan [MAP]

All 3 from their origins were naturally against God's order & His covenant people. Moab & Ammon were the sons born to the shameful incident where Lot committed incest with his daughter. Amalek was descended from Esau & the Amalekites particularly evil in Israel's desert wanderings — hyenas attacked the vulnerable who were lagging behind through the wilderness after the Exodus...& then Joshua subdued them.

God said He would completely 'blot the memory of Amalek from under heaven' (Ex 17:14; Deut 25:19)...it began to happen under King David, then finally under Hezekiah

See the glory of God in using one descendant of Esau to judge the enemy & another to punish His people.

v14, 'the people of Israel served Eglon the king of Moab eighteen years.

Then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and the Lord raised up for them a deliverer, Ehud, the son of Gera, the Benjaminite, a left-handed man. The people of Israel sent tribute by him to Eglon the king of Moab.'

the Lord's patience is highlighted as he gives them yet another deliverer — Ehud. The word makes a point of telling us that he's left-handed...the literal wording is 'a man bound or impotent in his right hand.' though the same term is also used of warriors of Benjamin in Judges 20 who are described as being deadly accurate in slinging stones...here in the context of the three surprising saviours....combined with the way Eglon & his servants receive him. It's likely that Ehud had a noticeable disability in his right hand.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악순환을 봅니다...그들을 악을 행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악의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13 절을 통해 보듯, 주님께서는 모압 왕을 세우셔서 아몬 사람과 아멜렉 족속과 세력을 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 족속은 약속에 땅에 거주하던 7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가나안 남쪽에 거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지도).

이 세 족속은 모두 하나님의 질서와 그의 언약 백성들을 반대하던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압과 아몬은 롯이 딸과 저지른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아멜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로, 특별히 이 족속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악을 저질렀습니다...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뒤처져 있는 취약 계층을 공격했고, 그 후 여호수아는 그들은 진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출 17:15, 신 25:19) 라고 말씀하십니다...이런 말씀은 다윗 왕 시대에 시작되었고, 히스기야 왕 때 이뤄졌습니다.

에서의 자손을 통해 적과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14~15 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에글론을 열어뒀 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구원자인 에훗을 주심으로, 주님의 인내심이 나타납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단어의 좀 더 문자적인 의미는, 오른손이 묶여 있거나 사용 불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에서는 그의 오른손에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God delivers his people from the consequences of sin in surprising ways

There's an irony — Benjamin means 'son of my right hand.' Here was a son of Israel's right hand who was left handed!

From here on, the writer adds satire to irony in making the king & his courtiers look completely gullible before the unexpected assassin... V16, 'Ehud had made a double-edged sword about a foot and a half long which he strapped to his right thigh under his clothing. He presented the tribute to Eglon king of Moab who was a very fat man.' The sword wasn't all that was double edged about Ehud....as he paid honour he plotted execution. The original Hebrew listeners would have heard the satire.....

Eglon means 'little bull' The writer describes him as 'a very fat man.' The scene is set as the evil king begins to look helpless — like a fattened calf that his name & nature reveals with every blow-by-blow description.

After presenting the tribute with an action that shows Eglon would have thought Ehud & the Israelites were presenting an offering to him as an act of worship.....Ehud sends the other Israelites who'd been with him away. v19, 'But he himself turned back at the idols near Gilgal and said, "I have a secret message for you, O king...."

Ehud's clever scheming continues. The stone idols would have held spiritual significance for Eglon. When Ehud advised the king that he had a secret message from the idols....he counted on Eglon thinking he'd received a supernatural revelation.

It worked! Eglon commanded silence & all his attendants left him. It's the most explicit account of assassination in Scripture. The author focuses on the details in how Ehud overcame Eglon...to give a blow by blow description in graphic terms...why?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원래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왼손잡이였던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16~17 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 왕에글론에게 바쳤는데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좌우에 날선 칼을 숨겼다 할 때, 이는 에훗의 모습을 또한 나타냅니다. 그는 다른 한 면에서는 그 왕을 살해할 계획을 꾸미는 동안, 다른 한 면에서는 복종적이고 공손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타납니다.

이 구절에서 에글론 왕을 비둔한 자 (매우 뚱뚱한 자)로 묘사합니다. 이는 왕이 그 상황 가운데 무력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에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숭배의 행위로 조공을 에글론 왕에게 바친 후에, 에훗은 그와 동행한 이스라엘 사람을 내보내고, 19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있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새번역)

에훗의 영리한 계약은 계속됩니다. 돌 우상은 에글론에게 영적인 중요성을 지닌 물건이었고, 에훗이 왕에게 이 돌 우상이 보낸 비밀 메시지가 있다고 말한다면, 에글론 왕은 에훗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에훗의 계약은 통하였고, 에글론 왕은 모든 부하에게 물러 나가라 명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노골적인 암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에훗이 어떻게 에글론을 정복했는지에 요점을 두기 위해,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God delivers his people from the consequences of sin in surprising ways

It's Scripture's way of reminding us that evil is personal & Ehud would have to deal with this wicked oppressor of God's people by nothing less than getting dirty.... risking his life & paying a heavy price to confront & overcome it.

It's shocking to us...but for those who'd been groaning under his greedy-oppressive 18-year long tyranny that's not how they would have heard it.

In slowing down the account of Eglon's assassination, the Lord's intent is to show that His saviour is able to dispatch evil in such a way as to make a complete mockery of the evil itself. God made sure the divinely inspired narrator focused on the event for comfort & glory not so we'd feel uneasy & be embarrassed.

The Lord's purpose is to challenge the tendency we all have to contain Him — to confine Him to what we think He ought to do.....to what the word should & shouldn't say.

Not only has the word made evil-Eglon by his demise a comfort to those who look to the God of this surprising saviour.....but also the comical response of Eglon's servants

v24, 'When he had gone, the servants came, and when they saw that the doors of the roof chamber were locked, they thought, "Surely he is relieving himself in the closet of the cool chamber." And they waited till they were embarrassed. But when he still did not open the doors of the roof chamber, they took the key and opened them, and there lay their lord dead on the floor.

Ehud escaped while they delayed, and he passed beyond the idols and escaped to Seirah.' Scripture presents the whole narrative in a way that ridicules the king & his dim-witted servants. Yet we're left in no doubt of Ehud's faith...

이는 악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자를 다룸은, 목숨을 걸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나타냅니다.

요기서 나오는 모습이 꽤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악한 왕에 억압 가운데 18 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낸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에글론의 암살에 대한 기록을 천천히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에훤이 악한 것을 조롱과 함께 제거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불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주시는 안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억제하려는 경향을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사악한 왕, 에글론의 죽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에글론 신하들의 우스꽝스러운 반응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안겨 줍니다...

24~25 절 "에훤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신하들이 지체하는 동안 에훤은 돌 우상 만드는 곳을 지나 스아라로 도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왕과 그 어리석은 신하들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묘사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에훤은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God delivers his people from the consequences of sin in surprising ways

V27 'When he arrived, he sounded the trumpet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hen the people of Israel went down with him from the hill country, and he was their leader. And he said to them, "Follow after me, for the Lord has given your enemies the Moabites into your hand." So they went down after him and seized the fords of the Jordan against the Moabites and did not allow anyone to pass over. And they killed at that time about 10,000 of the Moabites, all strong, able-bodied men; not a man escaped. So Moab was subdued that day under the hand of Israel. And the land had rest for eighty years.'

The Lord had raised up an unexpected Judge in Ehud & used all his skills of intrigue to deliver His people. Ehud's rescue is decisive as the Israelites conquered the Moabites –

The word translated 'strong, able-bodied' carries a similar meaning to the word used to describe Eglon. The writer intends a double meaning – we might use the word 'stout' that can mean 'sturdy' as well as 'overweight.' It shows us that it wasn't only the king who'd indulged & who'd grown large at the expense of the Israelites.....all the Moabite army were guilty & were wholly judged.

at the close of this satirical story.....Ehud & Israel completely overcome the enemy...God doesn't always work by what we consider 'normal' methods. We must trust Him even in the midst of events we can't understand, that He continues to work all things out for His glorious purposes....for the good of His people.

A Son of an Idol 'Goads' the Enemy (31)

V31, 'After him was Shamgar the son of Anath, who killed 600 of the Philistines with an oxgoad, and he also saved Israel.

Anath was a female Canaanite god. May have been son of a woman named after the god or even a follower himself.

27~30 절 “그가 그 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 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때에 그들이 쳐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만 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 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팔십 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주님은 뜻밖의 사사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음모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족속을 정복함으로, 구원자로서의 에훗의 모습은 명백해 집니다.

이 구절에서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이라 할 때, “*건장하고*”라는 비슷한 단어는 에글론은 묘사하기 위해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중적 의미가 있으며, 통통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견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뚱뚱했던 에글론 왕과, 모압의 군대를 같은 단어로 묘사함은, 모압 왕 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며, 그 모두가 심판 받아 마땅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풍자적 이야기 마지막에 에훗과 이스라엘 백성은 적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상의 아들 (31 절)

31 절 “*에훗 후에는 아낏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낏은 가나안의 여자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낏이라는 인물은 신의 이름을 딴 여자의 이름이거나, 그 신을 추종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God delivers his people from the consequences of sin in surprising ways

Bronze arrow heads that date to this same time of around 1300BC have been found with the inscription of a name followed by 'son of Anath'. Sons of Anath were Canaanite warriors. And yet this deliverer — this warrior used a most unconventional weapon – an ox-goad. He was probably a pagan cattle farmer!

Othniel the outsider....Ehud the disabled...Shamgar the idolator. Surprising saviours are to God's glory

The Uncontainable Christ Conquers all

They point us to the most astonishing Saviour of all.....

Isaiah 53:2-3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and familiar with suffering. Li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기원전 1300 년경으로 추정되는 청동 화살촉이 발견되었는데, 그 뒤에 '아낏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합니다. 아낏의 아들은 가나안의 용사였고, 그는 또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특이하게 소 모는 맥대기를 무기로 사용했고, 그는 아마도 소를 모는 이교도였을 것입니다.

외부인/아웃사이더였던 옷니엘, 장애를 가졌던 에훗, 그리고 우상 숭배자였던 삼갈.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자들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수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기시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구세주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3:2~3 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